

2002년 4월 21일

노무현 후보 경기경선 2부 연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선거인단과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치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정치혁명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고 그 정치혁명 한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한국의 정치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노사모 여러분, 정동영 고문에게 왜 그리 박수를 치십니까? 정동영 고문이 여기서 이기면 노풍이 죽습니다.(장내 웃음)

▶“노풍이 쓰러져 이풍 살까 걱정“

노풍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풍(이회창 바람...편집자주)'은 이겨야 합니다. 지난 2년동안 우리 국민의 정부 힘 빠지게 하고 우리 민주당 기죽게 했던 대세론, 그 징그러운 대세론을 잠재워냈는데 노풍이 쓰러져 이풍이 다시 살아날까 걱정입니다.

저는 정동영 고문이 많은 득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은 박수만 주십시오. 표는 대강 밀어주셔도 괜찮습니다.(장내 웃음)

밀어주십시오. 저도 갈등 생깁니다. 알아서들 하십시오. 저에겐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조용히 작용하리라 믿습니다.

왜 노풍이 불까요. 제가 잘 나서 그렇겠죠? 이렇게 우기고 나면 다음주에 정말 9회말에서 역전될까 싶어 절대 노무현이 잘 나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불가능하다는 데 도전했습니다. 그저 승부욕이 아니라 제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옳다고 말한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도전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에 도전했습니다. 위험했지만 그러나 역사는 희생을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새롭게 시현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치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도전했습니다.(장내 박수)

그러나 도전하고 희생한 사람이 어디 저 하나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수 없는 희생을 해왔지만 다 저처럼 보답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너무 과분하고 영광된 보답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경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원 동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을 여러분께 돌립니다.

제 기억에 남아있는 어린 시절의 민주당. 자유당은 법을 지키기 않고 부정 선거로 독재권력을 계속 이어가며 민주당을 탄압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당의 억압에 맞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 편에서 대신 싸우고 박해받았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역사입니다.

4.19 혁명, 부마 항쟁, 5.18 항쟁에 함께 했고 87년 6월 항쟁을 앞서 이끌어 민주주의의 승리를 만들었고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한나라당도 국민경선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기적도, 바람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만 그런 것은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에 근거한, 역사에서 비롯된 저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전세계 110개 국가가 지난 50년 동안 IMF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 중에 절반이 졸업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직 졸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MF 졸업한 60개국 가운데 약속한 기간 내에 빚을 갚은 나라는 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가장 짧은 시기에 198억 달러를 갚아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 세계 신기록을 세운 것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우리 경제 다 망친다고 공격받았지만 99년 우리 경제는 약 11% 성장을 해냈습니다. 2000년 약 9% 성장 해냈습니다. 전세계 경제가 뒷걸음질치는 작년에도 4% 가까운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뒷걸음질에 비하면 엄청난 업적입니다. 이 기적을 이룬 것도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였습니다.

탄탄한 경제 회복의 주역, 진념 부총리가... 여기 나와 계십니까? 아, 저기 계십니다.

▶“독점 폐해 막자는 게 (재벌) 규제 유지의 본질“

국민의 정부는 정권교체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원을 이뤄냈습니다. 민주주의 수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었고 체질을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내세웠습니다. 과거 시장경제는 관치 경제의 시장경제였습니다.

재벌이 주도하고 독점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지않는 정경유착의 시장경제였습니다. 이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경쟁력 있는 시장경제로 만들기 위해 시장개혁을 한 것이 4대 개혁입니다. 4대 개혁은

시장경제를 똑바로 하기 위한 개혁이었습니다.

이 개혁 역시 많은 공격을 받았습시다만 역시 세계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등급이 IMF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고 증권시장에서 주식값이 너무 급박하게 오를까 걱정할 정도로 힘차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개혁을 멈추어선 안됩니다. 99년 경제성장이 잘되니까 잠시 우리 정부도, 재계도 해이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또 과열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활성화되니까 과거 경제력 독점을 통해 과잉투자로 IMF 위기의 근거를 제공한, 덩치 큰 재벌이라는 계열기업 집단이 자유로운 시장을 위해 규제를 풀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금융자본 주식소유를 풀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금융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서 규제는 유지해야 합니다. 정경유착시절 독점시장의 폐해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 재벌개혁을 풀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규제 완화해야 한다고 답변하면 보수층에 넣어주고 규제 유지라고 하면 진보라고 분류한 어느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 신문을 보고 노무현은 급진이다, 좌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는 이와 같은 규제를 통해 이뤄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풀지 말자고 하는데 이것이 시장경제를 막는 것처럼 하는 것은 모략입니다.

▶“복지는 목적이고 시장은 수단“

이상 더 분배는 성장의 적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는 저축이나 투자

의 부족이 아니라 수요의 부족에서 침체가 올 위험이 있습니다. 소득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으면 수요가 항상 부족하고 언제 불경기가 올지 모릅니다. 따라서 건강하게 분배가 이뤄져 소득 분배가 잘 되고 빈부격차가 적은 사회가 올바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성장과 분배가 적대적 개념이라고 생각했던 70년대식으로는 안됩니다.

환경보호정책은 성장의 적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 완화 요구시, 규제완화를 이유로 환경 규제를 풀고 노동자 건강 위한 안전 규제를 푼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 분야가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하고 환경오염방지산업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환경은 새로운 산업이자 경쟁력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으로 우리 일자리 만들지 않으면 실업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왜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까? 시장경제를 왜 합니까? 잘 살자는 것 아닙니까? 왜 풍요로워져야 합니까? 복지를 위해서입니다. 복지는 목적이고 시장은 수단입니다. 복지로 소득 분배하고, 분배로 건강한 소비 늘리고, 복지로 일자리 늘려 나가는 정책입니다.

▶“새 정부 빈부격차 해소위해 노력해야“

4년 동안 IMF로 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소득 분배가 안돼 빈부 격차가 커졌습니다. 새 정부는 이 기간 겪은 고통을 치료하고 떨어진 빈부격차를 회복시키기 위한 특별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 정당의 본뜻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분열의 정치가 통합의 정치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3월16일 광주시민은 욕심을 버렸습니다. 누구나 당연히 가질 만한 지역에 대한 애정을 버렸습

니다. 노무현에게 지지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동서화합 위해 노력한대로 한국정치의 분열을 극복하고 동서화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제게 내린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동서화합을 이뤄내겠습니다.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노사화합을 이뤄 내고 남남갈등 극복하고 남북대화 성공시켜 한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말 줄이겠습니다. 다가오는 12월 아시겠죠.